

8_1_한국어_曼陀羅山古墳群

만다라산 고분군

만다라산 고분군은, 정면의 만다라산 능선 위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고분군입니다.

고분이란, 4세기부터 7세기에 걸쳐서 만들어진 무덤으로, 흙을 쌓아 올려 봉토를 만들고, 그 안에 시신을 매장한 것입니다. 그것이 수 많이 만들어져 있는 곳이 고분군입니다.

만다라산 고분군에서는 전부 120기 정도 발견되었습니다.

봉토의 모양은 여러 가지입니다만, 이 지점에 남겨져 있는 것은 원분이라고 불리는 둥근 것입니다.

또, 시신을 넣는 시설은 「횡혈식 석실」이라고 불리는, 돌을 쌓아 만든 방입니다.

사용된 돌은 큰 것은 3톤이나 하는 것도 있어서, 그 당시 사람들의 토목 기술이 높았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.